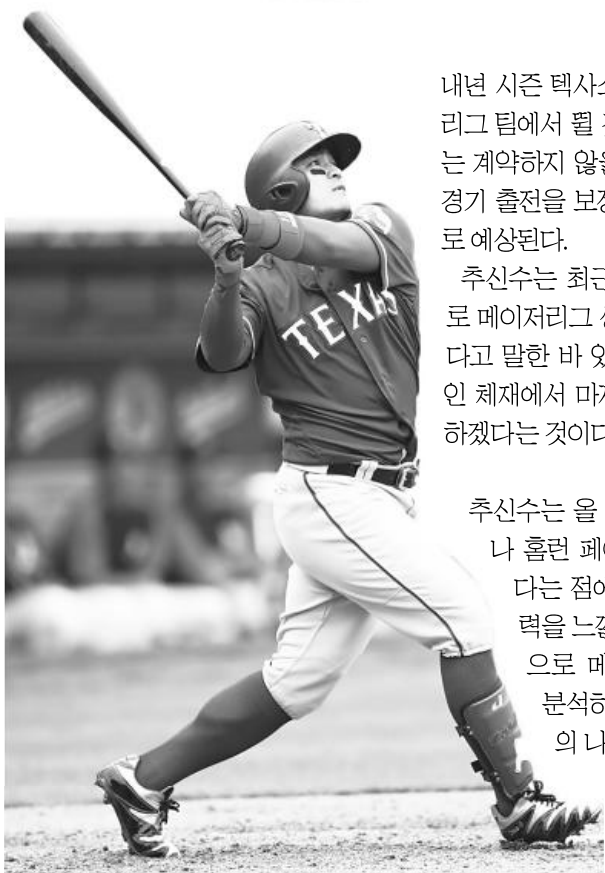


# “추신수, 내년 다른 팀에서 뛴 것”

# 한국 남자 33명, US여자오픈 출전권 획득



내년 시즌 텍사스가 아닌 다른 메이저 리그 팀에서 뛴 것이고 결코 싼 값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많은 경기 출전을 보장하는 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신수는 최근 60경기 체재를 끝으로 메이저리그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162경기의 정상적인 체재에서 마지막을 불태운 뒤 은퇴 하겠다는 것이다.

추신수는 올 시즌 타율은 저조했으나 홈런 페이스는 평소보다 나왔다는 점에서, 그의 장타력에 매력을 느낄 구단이 적지 않을 것으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추신수의 나이가 38세로, 2년 이상의 계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내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뛴 것으로 예측되는 추신수. 사진=타운뉴스DB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계약 마지막 시즌을 마친 추신수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언론 관계자가 추신수의 메이저리그 잔류를 예상했다.

지난 20일 ‘마니아리포트’에 따르면 텍사스 구단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추신수가 다른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의 메이저리그 잔류를 확신했다.

그는 “텍사스가 추신수와 재계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텍사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짜구려 모델’로 재계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추신수는 내년 시즌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어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능한 많은 출장을 보장하는 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추신수는

한편, 추신수는 2020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는 텍사스를 대표해 2020년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후보로 선정됐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은 1972년 니카라과 지진 피해 구호물자를 싣고 가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추모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사회에 공헌한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구단별 1명씩 30명의 후보를 선정해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와 4대 메이저리그 중계 방송사 대표, 클레멘테 유족, 팬 투표 등으로 최종 수상자를 정한다.

추신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텍사스 구단 산하 마이너리그 191명에게 각 1,000달러(약 118만원)씩을 지급했다.

추신수는 이밖에도 텍사스 구단 재단과 지역 교육청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적지 않은 기부 활동을 해왔다.

오는 12월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선수들이 대거 출전 자격을 얻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US여자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이날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확보한 한국 선수가 이미 3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US여자오픈에 출전한 한국 선수 22명보다 11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딴 한국 선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기존 세계랭킹 50위까지 주던 출전권을 세계랭킹 75위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USG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예선을 치르지 못하자 세계랭킹 기준 출전권을 늘렸다. 세계랭킹 50~75위에는 KLPGA투어 선수들이 많다. 이 덕분에 53위 박민지(22), 54위 이소미(21), 64위 조정민(26), 65위 이소영(23), 70위 김아림(25), 72위 김지영(24), 73위 박채윤(26)이 US여자오픈에 자격으로 출전할 길이 열렸다.

일본에서 뛰는 58위 안선주(33)와 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74위 최운정(30)에게도 출전권이 돌아간다.

최근 10년 US오픈 챔피언 이정은(24), 박성현(27), 전인지(26),

최나연(33), 유소연(30)과 최근 5년 사이 LPGA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고진영(25), 김인경(32), 이미림(30)은 일찌감치 US여자오픈 출전권을 확보했다.

김세영(27), 김효주(25), 허미정(31), 지은희(34), 양희영(31) 등은 작년 LPGA투어 CME 포인트 30위 이내 자격으로 이미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따냈다.

지난해 KLPGA투어 상금랭킹 1~5위 최혜진(21), 장하나(28), 이다연(23), 임희정(20), 조아연(20)도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이 있다.

11월 4일 아마추어 세계랭킹과 같은 달 11일 LPGA투어, LPGA 2부투어인 시메트라투어 상금랭킹으로 추가 출전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좀체 진정되지 않아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라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US여자오픈은 애초 6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12월11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US여자오픈은 1946년 창설됐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여자 골프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는 박세리(1998), 김주연(2005), 박인비(2008), 지은희(2009), 유소연(2011), 최나연(2012), 박인비(2013), 전인지(2015), 박성현(2017), 이정은(2019) 등이다.



▲ 지난해 LPGA US오픈에서 우승한 이정은이 벙긋샷을 하고 있다. 사진=타운뉴스DB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학,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